

# 유통·외식업계 무인화 '열풍'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면서 지역 유통업체와 외식업계의 '무인화' 바람이 거세다.

◇외식업계, 무인주문대·셀프서비스 확대

외식업계에서는 대규모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무인계산대와 셀프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지역 내 식당가도 이 같은 셀프 바람이 불고 있다.

12일 저녁 북구 일곡동 한 매일 전문음식점. 이 음식점에는 무인 주문기가 설치돼 있어 주문을 받는 소리, 주방에 주문을 불러주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입구 앞에 설치된 무인 주문기 앞에는 손님 5여 명이 줄을 서 있었다.

주문기 옆에는 주문 방법을 안내하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무인 주문기를 처음 사용하는 손님들은 주문을 잠시 주저했지만, 안내 문구와 모니터의 사진을 따라 금세 주문할 수 있었다.

음식을 나올 때도 TV 화면의 번호를 보고 찾아가는 모습이였다.

이 매장에서는 납킨이나 식기 등을 고객이 직접 챙겨야 하고 다 먹은 식기도 알아서 정리해야 한다.

손님 최모씨(29)는 "매장에 처음 왔을 때는 주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러한 시스템이 각 분야에 도입된다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등 고정비를 아끼려면 셀프 계산대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최저임금 인상·주문 간소화 등 효율성 확대를 위해 무인계산대(키오스크)를 앞다퉈 설치·운영 중이다.



12일 저녁 북구 일곡동 한 매일 전문음식점에서 한 손님이 무인 주문기를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

## 젊은 세대엔 무인시스템 편리·익숙 인건비 절감위해 셀프계산대도 운영

롯데리아는 매장방문 고객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주문 확대를 위해 '스마트오더' 주문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무인주문기기를 활용한 주문율은 평균 70~80%에 달하며, 무인주문체널 확대 효과로 운영 전 대비 평균 10% 정도의 매출 신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 지역의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현재 전체 매장 중 2~3곳 중 1곳 정도로 무인계산대를 운영하고 있다.

◇유통업계도 '무인화' 가세  
지역 유통업계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찾은 광산구 롯데마트 수완점에서는 셀프계산대 2대에 일반 계산대보다 줄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손님들은 셀프계산대 도입한 지 시간이 꽤 흘려 사용이 능숙해보였다. 특히 계산 오류·지체 등 혼란이 빚어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셀프 계산대를 이용한 박 모씨(여·37)는 "젊은 세대들은 무인시스템을

영화관이나 편의점 택배 등 많이 접해 봤기 때문에 익숙하다"며 "빠르게 계산을 하고 돌아갈 수 있어 오히려 편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셀프계산대의 경우 젊은 층 고객들의 이용률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역 내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모두 무인화 열풍에 가세하고 있는 모양새다. 롯데마트는 올해 안으로 40여개 매장에 각 10대씩 총 400여대의 무인 계산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무인편의점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전국 390여 대의 무인계산대를 운영하는 홈플러스의 관계자는 "도입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제 많은 손님들이 쉽게 이용하신다"고 말했다.

## 광주창조센터 보육기업 현장소통간담회

중기부 광주전남청, 유통 연계·해외세일즈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장(김진형)은 13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김진형)를 방문해 보육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즉시 해결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에 따르면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백익서 센터장)는 현재까지 97개의 창업기업 발굴·육성했고 투자유치 160억 3,000만원, 168개사 스마트팩토리 구축, 435개사 422억 6,000만원의 보증 펀드, 1913 송정역 시장 인프라 개선, 푸드트럭 지원 등 지역 벤처·창업기업은 물론 서민생활 개선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들의 해외 진출 필요성을 느낀 광주전남청청은 사전에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수출유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전용호 단장)과 KOTRA(이명진 부단장) 관계

자와 함께 이날 간담회를 진행했다.

섬도 방영 LED를 생산하는 ㈜오뚜마 홍동일 대표는 "비주류 지역의 출장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진중공에서는 광주시의 '해외세일즈 출장 지원사업'을 활용해 왕복항공료 80%, 통역비 100%를 지원받도록 조치했다.

위터엔라이프 류안나 대표는 "해외 시장 개척 시 신뢰할만한 유통채널이 필요하다"고 제기했고, 이에 중기부 수출지원센터에서는 롯데홈쇼핑 등 해외 플랫폼을 활용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사업'과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을 활용하도록 설명했다.

또 많은 기업들이 해외시장 정보와 바이어에 대한 소개를 요청하자, KOTRA에서는 해외무역관을 통해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

/유행동 기자



광주신세계 '비디비치 새내기 메이크업' 광주신세계는 2층 비디비치 매장에서 새내기 대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메이크업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신제품인 브이핏 쿠션과 스킨일루미네이션 제품으로 피부 결과 결점을 투명하게 커버하고 크리스탈 광채 밀레니얼업으로 특유의 화사함과 생기를 더했다.

## 광주노동청-롯데 광주점, 일자리 창출 MOU

롯데백화점 광주영업부서는 14일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과 김경현 롯데백화점 광주영업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안정자금 확산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하기 위한 선도모델을 만들어가는 시발점으로 롯데백화점 광주점, 아울렛 월드점, 아울렛 수완점, 아울렛 남양점 등 광주영업부 총 4개점이 참여한다.

협약식과 함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2층에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및 상담, 구인상담 등을 위한 고용지원출장

센터를 운영한다.

협약식을 통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롯데백화점 광주영업부서는 인재 채용을 위한 고용센터의 채용지원 서비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입점업체 근로조건 보호노력,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연계 청년 고용촉진사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앞서 롯데백화점 광주영업부인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역 일자리 창출, 감정근로자 인격보호,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캠페인 등 다양한 공동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유행동 기자

## 광주 지역 실업자 1년새 9,000명 증가

호남통계청 2월 고용동향...취업자는 1만2,000명 늘어

2월 실업자가 광주는 증가하고 전남은 감소했다.

14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지역 실업자는 3만5,000명으로 작년보다 9,000명(35.9%) 늘었다.

실업률은 4.5%로 작년보다 1.1% 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은 58.9%로 작년보다 0.9% 포인트 올랐다.

취업자는 74만2,000명으로 작년과 비교해 1만2,000명(1.6%) 늘었다.

지난달 전남지역 실업자는 4만7,000명으로 작년보다 8,000명(-14.0%) 줄었다.

실업률은 4.8%로 작년과 비교해 0.8% 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은 59.7%로 작년과 같았고, 취업자는 92만명으로 역시 작년과 동일했다. 산업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증가했으나 건설업, 광공업 등에서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전년 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1만3,000명(3.7%)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1만1,000명(-6.9%), 일용근로자는 4,000명(-6.6%) 각각 감소했다.

실업률은 4.8%로 전년 동월대비 0.8% 포인트 하락했고, 실업자는 4만7,000명으로 8,000명(-14.0%)이 감소했다.

이번 자료는 광주 1,600가구, 전남 1,8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4일부터 10일까지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한 결과다.

/유행동 기자

### 심야 보일러 히트펌프

심야 보일러 1대당 200~250만원 설치비 보조(한전)

저렴한 전기요금  
고효율 인버터 제어로 전기요금을 기존 심야전기 보일러 대비 전기요금 약 60% 절감시켰습니다.

고효율 인버터 제어

기존 심야 전기 보일러 대비  
60% 절감

전기요금 계산 기준  
= 소비전력(kWh) × 심야전력(원/㎾) × 10(시간당) × 30(일)

운전 비용 절감  
고효율 인버터 기술을 적용하여 등유대비 약 80%, 일반전기 보일러 대비 약 70%, 도시가스 대비 약 60% 이상 절감됩니다.

등유 대비 절감 비용

80% 절감 70% 절감 60% 절감

등유 보일러 일반 보일러 도시가스 보일러 히트펌프

연료별 발열량 (1KW당) 비용절감률  
※ 등유, LPG는 한국석유공사 (14. 01월 요금 적용)  
LNG는 한국도시가스협회(서울시 기준) 적용  
일반전기는 일반용(간) 저전압 기준 기본요금 반영  
심야전기는 13. 11월 요금 적용  
공기열 전기보일러는 정적난방 기준

해드림에너지 010-2633-0890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295 동림B/D 2층

### Panasonic

메모리 카드 카메라 레코더

업계 최대 광각 24mm, 20배 광학 줌 및 1.0타입<sup>3</sup> MOS 센서가 특징인 4K 60p/50p<sup>1</sup>캠코더

AG-UX90  
AG-UX180  
AG-DVX200

최신 기능과 구성  
4K PROFESSIONAL  
UX SERIES

고화질과 기능성을 겸비한 4K 영상 제작의 새로운 기준

파나소닉 HD프라자 062) 382-6666  
HD코리아(주)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24번지 (임동오거리)